

EXHIBITION

Art & Design Now

눈과 귀를 열어두고 <에비뉴엘>이 전하는 문화 예술계 소식에 주목하라. 예술을 가까이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삶이 풍요로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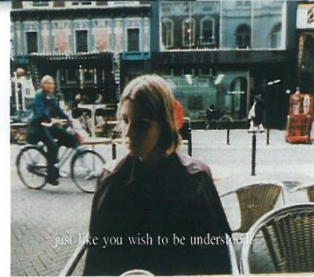
2



1



3



1 의식의 흐름을 따른다

회화의 의미와 가능성을 확장해온 배운환. 그의 개인전 <숨 쉬는 섬>이 개최됐다. 이번 전시에는 '자동기술법'에 기반을 두고 오직 의식의 흐름을 따라 그려나간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이자 인간으로서 느꼈던 삶의 고민을 캔버스에 담아낸 것. 무작위로 떠오른 이미지들을 선별하여 손이 닿는 대로 채워나간 작품들은 '캔버스'라는 규정된 프레임에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이는 자신을 제약하는 모든 것을 화면에 흘려낸 것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하나의 성과도 같다. 배운환이 온전히 담긴 작품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형상의 절정을 담는다. 전시는 1월 27일까지 갤러리바론에서. 문의 597-5701

배운환 '컬러라 함께는 없지', Acrylic on Canvas, 45×53cm, 2017.

2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는가

2015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 수상 작가 임흥순의 개인전 <MMCA 현대차 시리즈 2017: 임흥순-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 열렸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형성된 이데올로기. 이것이 우리들의 무의식속 유행처럼 스며들어 광범한 일상을 어떻게 파괴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희생되고 소외된 여성들의 삶에 주목해 4명의 할머니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흠뻑러진 그녀들의 부서진 시간들이 믿음, 배신, 공포, 유령 등 상징 언어를 중심으로 복원됐다. 전시는 4월 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5, 7 전시실, 미디어랩 및 서울박스에서. 문의 3701-9500

임흥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영화 스틸, 2017.

3 르메트르 부부의 선구관

아주 오래전부터 영상을 수집한 컬렉터가 있다. 1980년대 이후 싱글 채널 비디오와 실험영화를 수집해온 개인 컬렉터 르메트르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변화하는 인간성, 사회 정치적 시스템의 한계, 오늘날의 다양한 이미지를 다루는 35개국 예술가들의 영화, 다큐멘터리, 시각예술 비디오를 소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아트 컬렉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비디오와 뉴미디어 아트 작품을 소장한 컬렉터로 소개되기도 했다. <Vision on Vision-르메트르 비디오 컬렉션>은 부부의 실험적 컬렉션 150여 점 이상을 아우른다. 전시는 1월 21일까지 SeMA 벵커에서. 문의 2124-8800

Deimantas Narkevičius 'Kamietis', 19', Lithuania, 2002. Superflex 'The working Life', 9'50", Denmark,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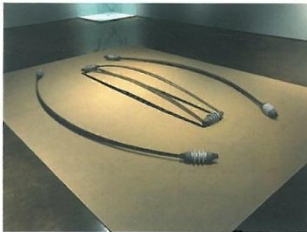


4

6



5



4 독도의 새로운 해석

마이클 주의 개인전 〈Single Breath Transfer〉는 지난 2년간 뉴욕, 독도, 한반도 비무장 지대(DMZ)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하고 작업한 결과물이다. 자연 만물의 유동적인 상태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재탄생했다. 전시명 'Single Breath Transfer'는 의학용어로 '단회 호흡법' 또는 '일산화탄소 폐확산능 검사'를 뜻한다. 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으로 녹아 들어가는 정도를 측정하는 임상실험을 일컫는다.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 원리인 산소 또는 에너지의 순환 작용은 일상 속에서 작용하는 물리적 법칙과 자연의 섭리를 은유한다. 마이클 주의 지적 호기심과 연구, 기록이 예술로 발전하는 순간을 확인해보자. 전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문의 735-8449

마이클 주 'Production Still(Dokdo)', 2017.

5 가오 레이가 낸 수수께끼

가오 레이의 개인전 〈배후의 조정자〉는 약 5년 만에 열리는 국내 개인전이다. 바빙허우(중국의 1980년대생을 일컫는 말. 물질적 풍요와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해 지식과 예술에 대한 갈증이 시작됨) 세대에 속하는 작가는 현대 사회의 부조리와 아이러니,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동물의 박제나 뼈 등 다양한 오브제를 결합하거나 열쇠 구멍을 통해 '옛본' 듯한 시점으로 사진을 찍는 등 다양한 작업으로 철학적 질문을 던져왔다. 그의 작품은 고요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질서와 혼돈 등 상반되는 긴장감이 역설적으로 교차된다. 전시는 1월 7일까지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열린다. 문의 541-5701

가오 레이 'Enzyme of Trial', Wood, Case, Iron, 4.1×2.9m, 2017.

6 커닝햄의 삶과 사진

미국을 대표하는 여류 사진가 이모젠 커닝햄. 열여덟 무렵의 어린 나이에 사진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래, 70여 년에 걸친 그녀의 삶은 '사진의, 사진에 의한, 그리고 사진을 위한 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모젠 커닝햄의 국내 개인전 〈Imogen Cunningham〉은 그녀의 백금프린트 25점과 은염프린트 12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이모젠 커닝햄의 빈티지 프린트가 지난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트스페이스 J에서 1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문의 031-712-7528

이모젠 커닝햄 'Frida Kahlo Rivera, Painter and Wife of Diego Rivera', Platinum & Palladium Print, 51×41cm, 1931.
이모젠 커닝햄 'Alice-Marie on Haight Street', Platinum & Palladium Print, 51×41cm, 1967.